

여아(女兒) 2벌 당의(唐衣)의 봉제구성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청연군주(1752~1821) 2벌 당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wing Construction of a Girl's Double Robe - Focusing on the Double Robe of Princess Chungyun (1752-1821) in Late Chosun Dynasty

임상임 · 류보영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 · 산업전공

Im, Sang im · Ryu, Bo young
Major in Fashion ·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wing construction of a double ro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ngle and double robe, and the size and construction method of the double robe through a close analysis of a replica to facilit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obe making in late Chosun dynas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sign and sewing method between the girl's robe and an adult's even though the girl's robe was much smaller.
2. The girl's robe differed from its modern counterparts in some respects: unlike modern robes, Chungyun's robe consisted of two-layers in which the four layers were sewn together and it could be seen most clearly in the way the collar was stitched only onto the outer layer. The two layers seemed to be put on successively since they were not sewn together. The inner collars of the two robes were sewn together when the maker put on a coat string to the outer robe, and the two robes were put together with hemming and blind stitch at the top of the outer collars to make the robe formally stable, which clearly distinguished the princess' robe from a single, for example, four-layered robe. The robe was constructed using traditional sewing methods including broad stitch, back stitch, hemming, and blind stitch, and each stitch was only about 1 mm wide.
3. The maker of the robe managed to construct a formally stable and aesthetically satisfactory robe with the least amount of fabric and proper sewing methods.

Key words : double robe, girl's robe, sewing construction, princess Chungyun

I. 서론

복식은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생활사의 일부 분이므로 복식 유물은 과거시대의 의생활사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복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해되어 사라지는 유기물로서 시기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식은 타 유물에 비해 월등히 그 수가 적다. 따라서 복식유물을 통해 과거 시대의 의생활사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들어 매장되어 있던 복식 유물들이 출토되어 실물자료로서 좋은 연구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물은 성인복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아기 복식 유물은 그 수가 미미하다.

오늘날 어린이의 사회적 위치 변화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강순제 · 이선민, 2003) 유아들에 있어서도 전통 복식의 착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아 한복들은 대다수가 전통복과는 다소 거리가 멀며 미적 조형성이 결여된 의상들이 많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잘못된 전통복에 대

* Corresponding author: Im, sang im
Tel: 063) 850-6648 Fax: 063) 850-7301
E-mail: sangim@wonkwang.ac.kr

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한복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제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유아들이 선호하는 전통 의상중의 하나인 당의의 봉제 구성 방법을 유물을 통해 고찰하여 유아 당의의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분석 유물 대상은 청연군주 2벌 당의이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본 유물이 최초의 유아 출토 유물로서 최 상류층에서 착용한 궁중 유물로 타 유물에 비해 전통 봉제 기법을 지니고 있으리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벌 당의는 일반 당의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면서 숙련된 봉제 기술을 요한다. 그러므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딸 청연군주(淸衍郡主:1754~1821)의 길례 전인 유아(幼兒)시에 착용 된 2벌 당의(唐衣)는 복식사적 의의가 클 것이다. 2벌 당의란 4겹 당의를 칭하는 용어로 겹으로 된 겹 당의와 안 당의를 겹쳐 입는 당의이다. 청연군주 2벌 당의는 각각 석류문단의 겹감과 명주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 당의와 칠보 운문단의 겹감과 명주 안감으로 제작되어진 안 당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인 고찰로써, 유물에 대한 복원품의 복원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2벌 당의의 봉제 구성법을 제시함으로써 홀당의와 겹당의와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당의의 미적 조형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본 유물은 오랜 세월에도 부식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여 의복 형태, 직물에 대한 복식사적 연구의 한계성을 풀어주고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는 되었으나, 색상만은 퇴색하여 색상분류에 한계가 있었다.

II. 이론적 배경

당의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여자복식으로는 그 출토량이 많다. 이는 당의가 궁중에서는 평상복으로 사용되다가 조선 말기부터는 내·외명부의 소례복(小禮服)으로 사용되며(이상은, 1992), 조선문안에도 당의를 착용한다는 사실에서 의식복식(儀式服飾)에 비하여 일상복에 가까운 복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김용숙, 1986). 또한 당의는 색에 따라 녹색 당의, 자색 당의, 홍색 당의, 백색 당의, 남송(노란색) 당의로 나뉘며, 그 바느질법에 따라 홀당의, 겹당의로 나뉘고, 홀당의는 당적삼, 당한삼이라고도 하며 겹당의는 당저고리, 당고의라고도 한다(이상은 1992). 그 형태는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유연한 곡선으로 트이고 반달모양의 도련으로 되어 있으며, 대개 초록색 바탕에 다홍색 안을 받치고 자주색 겹고름과 안고름을 달았고,

소매 끝에는 흰색의 거들지를 달았다(유희경·김문자, 1995). 당의의 고름에는 중삼작(中三作) 노리개를 패용하였으며, 왕족의 당의는 직금(織金)과 부금(附金)을 하여 장식하였다.

당의의 재질은 계절의 절기에 따라 철저히 성문화 된 법규에 맞춰 사용되어졌다. 2월에서 5월까지의 초록 공단, 향라, 광사로 된 당의를 입고, 단오가 지나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든 복중(伏中)에는 비빔들을 위시하여 내인들은 백광사 혹은 백저포(苧布)로 지은 당한삼을 입었으며, 추석을 전후한 음력 8월 10일이 되면 웃전에서 입은 후 비로소 색이 있는 초록 광사 홀당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음력 8월 20일부터는 겹당을 입고, 음력 10월부터는 겨울 복식으로 초록 공단 겹당을 착용하였다. 이렇게 까다로운 형식으로 재질과 복색을 규정한 당의는 특히, 궁중의 삼명절(三名節)인 탄일(誕日), 동지(冬至), 정조(正朝)·망일(望日)에도 비빈(妃嬪)들은 원삼이 아니고 당의 차림(김용숙, 1986)이라는 데서 소례복 중에서는 최고의 정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왕녀들도 비빈들과 마찬가지로 삼명절 이외에도 평상시 범절을 지키기 위하여 소례복이었던 당의를 입었으며, 체통과 품위를 지키고 동시에 젊은 내인과 혼동되지 않기 위해 무더운 복중(伏中)까지도 당의를 착용하였다(유희경, 1975). 또한 조선조 말기 영친왕 가례(嘉禮) 시 마지막 왕녀인 덕혜옹주가 착용한 복식도 당의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례와 같은 나라의 큰 의식에도 어린 왕녀는 내·외명부의 성인들과 달리 화관 장식에 청, 홍색 스란치마 두벌과 직금 당의를 착용한 것(석주선, 1988)으로 당의가 어린 왕녀들에게 폭넓게 입혀진 것을 알 수 있다.

III. 여아 2벌 당의의 실증적 고찰

1. 유물의 배경 및 특징

본 유물은 경기도 광주군 세촌면 암동리 소재의 청연군주(1754~1821)와 부군 김기성(金箕性: 1752~1811)의 합장묘 분묘 이장 중 출토된 복식 중 한 점이다. 당시 발굴된 분묘에서는 복식과 부장품(副葬品) 약 200여 점이 출토되었고, 그 중 청연군주의 유물은 60여벌로 대부분 국립 중앙 박물관과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당의는 현재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청연군주의 수의 종류는 원삼, 당의, 치마, 저고리 등인데 색깔은 모두 상색(緋色)으로 변했으

나 옷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어 150여 년 전의 당시 궁중생활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복식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석주선, 1985).

본 출토 복식의 피장자인 청연군주는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추존 장조(蔣祖):1735~1762)와妃인 혜빈 홍씨(혜경궁 홍씨: 추존 경의왕후(敬懿王后); 1735~1815)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영조(英祖) 30년에 출생하여 순조(純祖) 21년에 향년 67세로 타계하였다. 그녀는 1남 2녀 중 장녀로서 위로는 정조(正祖: 1752~1800)가 있고, 아래로는 청선군주가 있으며, 같이 합장된 남편 김기성과는 1765년(영조 42년)에 결혼하였다.

이에 따라 본 출토 복식의 피장자 생존시기는 18C 중·후기에서 19C 초기로서 영조, 정조, 순조 3대에 걸쳐 생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고찰한 유물은 크기로 미루어보아 군주가 궁에서 생활한 5~6세 때의 당의로 추측되어지므로 18C 중기 어린 왕녀의 당의로 볼 수 있겠다.

18C는 확연하게 저고리가 단소화(短小化) 경향을 띠는 시기이다. 이에 본 유물도 저고리 단소화의 영향을 받아 화장, 진동, 소매, 부리, 깃, 고대, 거들지 너비가 전대에 비해 과감하고 급격하게 짧아지고 줄어든 형태(석주선, 1988)이고 목판 깃과 당코 깃이 혼용된 과도기적 깃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질은 석류문단(石榴紋緞)과 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명주(明紬)를 사용하였다. 석류문단은 조선조 후기 여인들에게 상하 없이 가장 귀하게 여겨진 옷감으로 부귀다남(富貴多男)의 의미를 내포한 석류와 수(壽), 복(福)의 문자를 직조한 직물로서 무늬가 크지 않고 조촐하여 저고리 혹은 당의 등에 쓰였으며, 중국에서 온 비단이라 비빔들이 아니고서는 이 옷 한 벌 입기가 쉽지 않았다(김용숙, 1986)한다. 보통은 석류와 장수(長壽)를 축

원하는 복숭아(桃) 문양을 즐겨 같이 사용하지만 본 당의는 '壽' 라는 문자 문양을 직접 넣어 어린 왕녀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속당의 걸감으로 사용된 칠보운문단은 주로 용포와 내작(內作)감으로 쓰인 것으로 일명 한단(漢緞)이라고도 하며 이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 값진 비단이다. 색채는 지체가 높을수록 선명하고 담백한 색채를 보이나, 유물의 색상이 변하여 고찰은 어려웠지만 그 재질로 미루어 보아 선명한 색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착용 시기는 본 유물이 2벌 당의이므로 왕실에서는 음력 10월부터 겨울 복식으로 초록 겹당의에 비단 옷치마를 입고 정월·망간 복색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김용숙, 1986)으로, 짐작하건 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 착용되어진 복식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귀한 옷감을 사용하여 2벌로 제작되어진 당의를 착용한 어린 군주는 왕세자의 정실(正室)에서 태어난 딸로서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공주로 승격되는 지엄한 존재로서 품계를 초월하여 이에 준한 고귀한 대우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실측치수 및 구성상의 특징

본 유물인 청연 군주 2벌 당의는 길이가 58.5cm, 화장 52cm, 품 30cm이다. 이를 조선 후기 어린 왕녀의 복식으로서 가장 많은 수량의 복식이 전해지는 덕온공주(德溫公主: 純祖의 3女, 1822 - 1844)의 유물과 비교하였을 때, 덕온공주의 두릅색 도류불수사(桃榴佛手紗) 하절용홀당의는 길이 62cm, 화장 56cm, 품 30cm이며, 같은 하절

〈표 1〉 실측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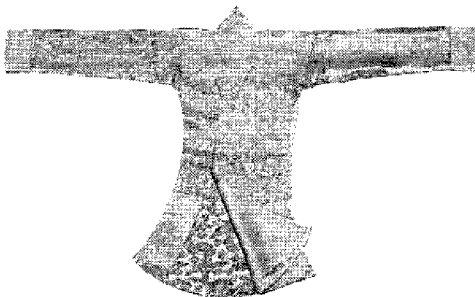
(단위: cm)

| 당의의 실측항목 | 치수 | | 당의의 실측항목 | 치수 | | |
|-----------|---------|---------|----------|------|---------|------|
| | 겉 당의 | 속 당의 | | 겉 당의 | 속 당의 | |
| 품 (거드랑이점) | 14~14.5 | 13.5~14 | 겉섶 | 길이 | 51 | 50 |
| 길이 | 58.5 | 58.5 | | 상 | 7.5~7.7 | 7.2 |
| 화장 | 48 | 52 | | 하 | 16.5 | 16.2 |
| 진동 | 14.5 | 13.5 | 안섶 | 길이 | 50 | 51 |
| 고대 | 10.5 | 10.5 | | 상 | 4.4 | 4.2 |
| 부리 | 11 | 11 | | 하 | 11 | 11 |
| 거들지 나비 | . | 6 | 동정 | 나비 | . | . |
| 깃 | 나비 | 5.8 | | 길이 | . | . |
| | 길이 | 47.5 | 긴 고름 | . | . | |
| | 겉깃 | 18.5 | 짧은 고름 | . | . | |
| | 고대 | 10.5 | 속고름 | . | . | |
| | 안깃 | 18.5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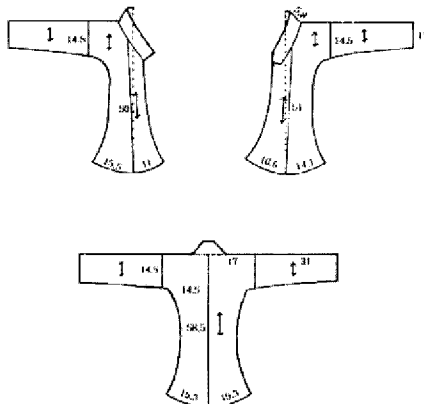
용 흘당의이나 덕은공주가 길레를 치른 16세 되던 해에 입었던 자주색 화문사(花紋紗)에 수복자를 금박하여 화려한 장식을 가식한 유물은 길이 72cm, 화장 64cm, 품 35cm이고, 초록색 흘당의는 길이 73cm, 화장 67cm, 품 36cm이다. 또한 중요민속자료 1호인 덕은 공주의 자색 수복문직금단에 분홍색 도련주로 안을 댄 겹당의는 길이 71.5cm, 화장 69cm, 품 36cm 인 점(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00)으로 보아 현존하는 여아 당의 중 길이와 화장의 치수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본 유물이 다른 유물에 비하여 가장 어린 연령시기에 착용 한 당의라고 짐작 할 수 있다.

본 유물의 치수를 실측하여 제시하면 <표 1> 과 같으며, 유물 출토 시 고름과 동정은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고름과 동정의 치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1 참조> .

[사진 1] 은 본 유물의 사진으로서 가시적으로 유물의 형태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측치수를 기초로 한 실측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사진 1] 청원군주 2벌 당의 (출토복식)



<그림 1> 실측도

본 당의의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복의 각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바느질 방법에는 0.1cm 내외의 고운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가 사용되었으며, 옷감을 연결하는 솔기처리 방법에는 풀솔, 가름솔이 이용되었다. 또한 본 유물은 4계절 중 겨울철에 착용되어진 겹으로 된 의복으로서 시점을 일정 크기로 잘라내어 바느질하는 박이접 바느질과 일정크기의 시점을 그대로 접어서 바느질하는 물겹 방식이 혼용되었다.

본 당의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깃은 겹 당의와 속 당의 모두 2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형태는 목판 깃과 당코 깃이 혼용된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2 참조]. 특히 어깨와 등술은 골로 연결되어진 1장 구성으로, 등술은 1cm 시점이 되도록 맞잡고 고운 홈질로 다시 한번 박아 주었다. 또한 앞은 겹 당의와 속 당의의 겹설과 안설 모두 1장 구성이며, 안, 겹길과 고운 홈질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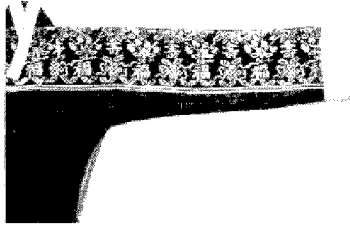


[사진 2] 깃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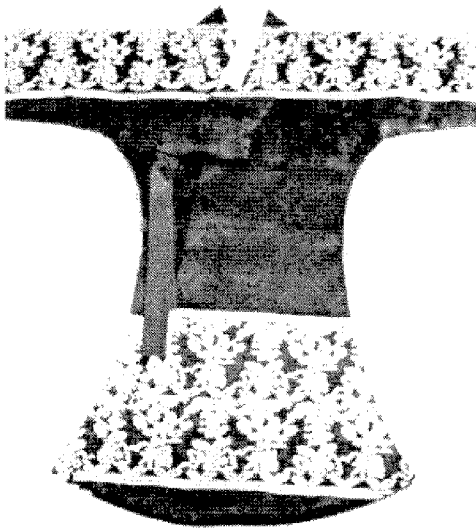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향하면서 소매통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소매와 길이 연결되는 진동선은 어깨 중심선과 겨드랑이 점을 이은 점에서 각각 겹 당의는 2.5cm, 속 당의는 4.5cm씩 소매 쪽으로 이동시켜 홈질로 연결하였다 [사진 3 참조]. 또한 겹 당의의 수구는 1cm 크기의 시점으로 공그르기를 이용하여 마무리 되었고, 속 당의의 수구는 거들지를 홈질로 연결하여 견어 올려졌다. 따라서 완성 시 겹 당의와 거들지가 대어진 속 당의의 화장 길이는 약 4cm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속 당의의 겹감 소매는 직물의 폭을 이용하여 길과 소매가 연결되어져서 마름질 되어지고 겹 당의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의 소매 재질은 안감과 동일한 재질이 사용된 점을 미루어보아 이는 당시의 합리적인 의복 재료의 사용을 엿볼 수 있다.

배래는 겹 당의와 속 당의 모두 겹감과 안감을 각각 겨드랑이점에서부터 수구까지 고운 홈질로 바느질 하였고, 당의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도련은 겹감과 안감을 마주 보도록 맞대어 놓고 겨드랑이 점에서 출발하여 고대의 깃 중심 쪽으로 0.1cm 내외의 홈질로 봉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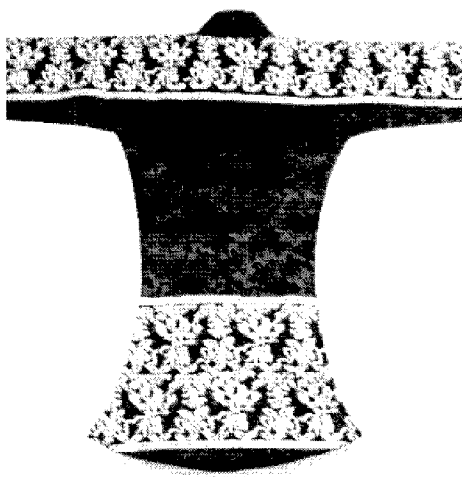
데, 도련의 곡선 형태가 깊게 파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4, 5 참조].



[사진 3] 소매 형태



[사진 4] 앞길의 도련 형태



[사진 5] 뒷길의 도련 형태

한편, 고름은 출토 시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시

기의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총 5개의 고름을 고운 흙질로 구성하였다. 이는 1점이며, 1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길에 연결된 부위는 2점으로 접어 봉제 되었으며, 이때 끝이 위로 향하도록 하였고, 연결 시 온 박음질로 바느질하여 착장 시 보다 튼튼하게 착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겹 당의와 속 당의 모두 겹깃의 깃머리 부분은 완성선 0.1cm 안쪽에서 울을 세듯 아주 고운 온 박음질로 상침이 되었다. 이처럼 상침처리 된 것은 당시에 겹감과 안감이 따로 구성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동시기의 성인의 포나 저고리의 구성방법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IV. 복원품을 통한 봉제구성 방법 고찰

1. 마름질

마름질은 앞에서 제작된 실측도에 나타난 각 구성 부위를 55cm 폭에 배치하였다. 겹 당의와 속 당의의 길 폭이 유아복인 관계로 각각 17cm, 18cm 나비로 좁게 구성됨에 따라 그 여유분에서 깃과 겹섶, 안섶 등을 마름질할 수 있었으며, 시접은 전체적으로 1cm를 두었다.

본 유물의 복원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옷감량은 포폭 55cm를 기준으로 겹 당의의 겹감과 안감은 각각 약 180cm(약 2마)가 필요하며, 속 당의의 겹감은 175cm(약 2마) 안감은 295cm(약 3 1/3마)가 소요된다. 그리고 속 당의의 수구에 달린 거들지는 약 52cm(약 3/5마)의 장지문단이 사용되며, 속 당의의 안감 소요량이 겹 당의의 안감량 보다 증가한것은 안으로 끼워 입혀지는 속 당의의 겹감 소매를 안감으로 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속 당의는 마름질 시 겹 당의보다는 품, 진동, 깃나비, 깃길이, 겹섶길이 등이 0.3~1.5cm 정도 작게 마름질 되며, 실측 치수가 같게 나온 부위는 약 0.1cm씩 길 쪽으로 들어가도록 마름질하여 착장 시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2. 바느질 순서 및 방법

1) 어깨솔기 박기

어깨솔기는 현재의 봉제 방법(임상임·유관순, 1999)처럼 적당량의 어깨 시접을 두고 바느질 하지 않고, 끼끼 바느질법과 동일하게 시접 없이 끝선으로 처리된다.

2) 등술 박기

등술은 그 길이가 58.5cm로서 앞길과 뒷길의 길이 차이는 없다. 등 중심선을 중심으로 골로 마름질 되었으며 좌, 우 뒷길 중심선을 1cm 나비의 시접이 되도록 마주 잡고 위에서 밑으로 0.1cm 간격으로 고운 흠질을 하였다. 이때 술기는 입어서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꺾어 넘긴다.

3) 걸쇠 잇기

걸쇠의 올 방향은 길과 동일한 방향으로서 그 길이는 51cm이다. 봉제 시 걸쇠의 식서 부분이 길과 0.1cm 크기의 흠질로 연결 되었고, 그 시접 술기는 1cm 남기고 잘라 낸 후 걸쇠 쪽으로 꺾는다.

4) 안섶 잇기

안섶의 길이는 걸쇠보다 1cm 작은 50cm이다. 그러나 올 방향은 걸쇠와 같이 길 중심과 일치하며 봉제 시에 식서 부분이 0.1cm 간격의 흠질로 길과 연결되어지고 술기 시접은 1cm 남기고 잘라 낸 후, 현재의 봉제방법(임상임·유관순, 1999)과는 달리 시접을 안섶 쪽으로 꺾는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보아 온 많은 유물들의 안섶 올 방향은 사선 방향을 취하나 본 유물은 이와는 달리 걸쇠와 같이 길과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마름질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려된다.

5) 진동술 잇기

어깨술기와 소매 중심선을 어긋나지 않도록 길과 소매를 겹끼리 잘 맞대어 놓고 0.1cm의 고운 흠질로 바느질 하여 진동을 만들고 술기의 시접은 가름술로 처리한다.

6) 깃 달기

깃은 2접이나 걸감과 안감에서 각각 구성이 된다. 깃 나비는 5.8cm이며 깃 길이는 47.5cm로서, 길에 깃 선을 표시하고 깃 선을 따라 깃머리에서부터 안깃 방향으로 0.1cm씩 시접 쪽으로 나와 곱게 흠질하며, 시접은 깃 쪽으로 꺾는다. 또한 걸깃 섶 쪽의 깃머리 부분 2.5cm는 올을 세듯 온 박음질로 상침한다. 이후 안깃은 공그르기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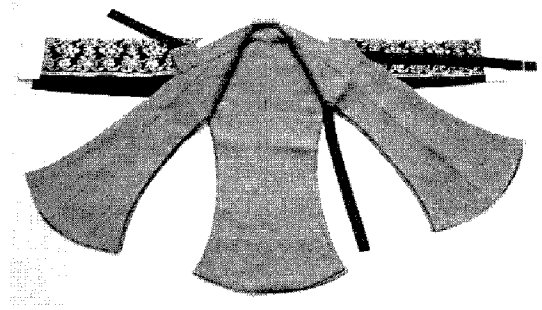
7) 배래하기

배래는 어깨선을 중심으로 접혀진 상태에서 진동길이

(진동둘레의 1/2)와 수구길이를 살펴보면, 수구 쪽으로 가면서 소매가 점차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진동과 수구의 차이는 3.5cm이다. 0.1cm 고운 흠질로 바느질한 후 시접은 뒷길 쪽으로 넘기고, 수구는 공그르기로 마무리한다.

8) 안감 완성하기

본 유물은 배래가 4접 구성이 아니다. 이는 걸감과 안감이 각각 구성되어 안팎이 연결된 것으로서, 현재의 한복 봉제 구성법(임상임·유관순, 1999)과 달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여 진다. 이의 안감 봉제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걸감과 같이 하되 섶과 깃의 위치를 바꾸어 달아주며, 진동은 그 술기 시접을 현재 바느질법(임상임·유관순, 1999)과는 틀리게 걸감과 같이 가름술로 하지 않고, 한쪽 방향인 길 쪽으로 꺾어준다 [사진 6 참조].



[사진 6] 안감 완성하기

9) 안팎 연결하기

걸감과 안감을 이을 때에는 각각 걸감과 안감의 겹을 마주보도록 맞대어 놓고 소매를 끼워 놓는다. 먼저 뒷길 쪽에서는 고대점, 등술선, 옆 겨드랑이 점을 맞추고, 앞길에서는 고대점, 길과 섶선을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옆 겨드랑이 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련을 지나 깃 중심의 창구멍까지 돌려 박아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련 바느질 시 시접을 1cm내외로 하여 고운 흠질로 박아주고, 곡선 처리 된 도련은 가윗밥을 넣지 않고 1cm내외의 적은 시접을 늘려가면서 걸감 쪽으로 0.1cm씩 완성선이 보이도록 꺾어 다려 준다. 또한 고대의 깃 중심 쪽에 창구멍을 11cm만큼 남겨 놓아 뒤집기에 용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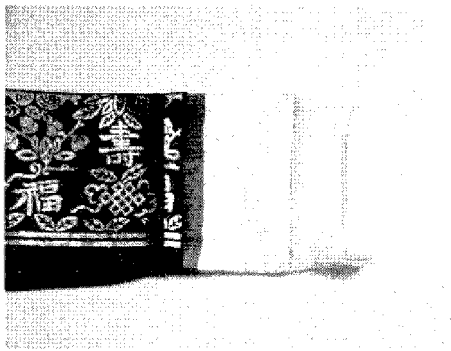
10) 뒤집기

고대의 깃 중심에 나 있는 창구멍으로 뒤집고 정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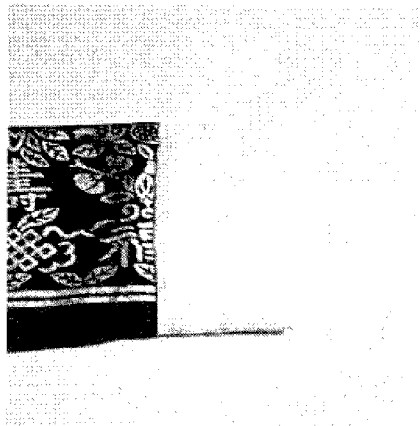
후, 창구멍은 성긴 홉질로 마무리한다.

11) 속 당의 만들기

속 당의의 봉제구성 방법은 겉 당의와 같으나, 화장은 거들지를 달아 견어 올리는 관계로 겉 당의보다 4cm 정도 길다. 거들지는 속 당의의 걸감과 안감 소매 끝에 각각 붙인 후, 걸감과 안감을 이을 시 걸끼리 부리를 맞대어 놓은 후 1cm 시접을 남기고 돌려 박아준다. 이때 시접 솔기는 걸감 쪽으로 꺾는다. 그 후 거들지 끝부분의 1cm를 시접으로 접고 거들지의 나비가 6cm가 되도록 하여 겉 당의의 소매 끝에 형태를 고정시켜 완성한다 [사진 7, 8 참조].



[사진 7] 거들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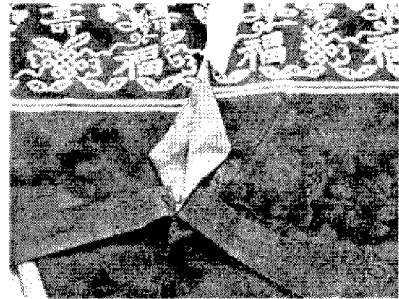
[사진 8] 거들지 완성

12) 고름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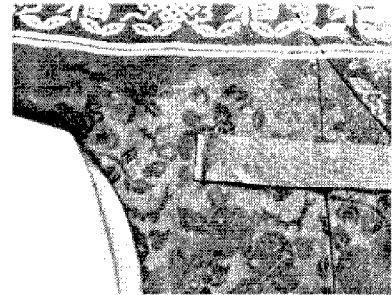
고름은 유물 출토 시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동시기의 다른 유물을 참조하여 치수를 설정, 제작 한다. 겉 당의에 속 당의를 끼워 입는 본 당의의 특성상 겉 당의에는 걸고름의 긴 고름과 짧은 고름, 안깃에 달

려지는 속고름 그리고 속 당의의 걸깃에 달려지는 걸고름의 긴 고름과 옆 겨드랑이 점에 달려지는 속고름 등 총 5개의 고름이 필요하며, 고름은 홉으로 구성된다. 겉 당의의 걸고름의 긴 고름과 짧은 고름, 속 당의의 긴 고름은 모두 2.2cm 나비에 45cm 길이며 속고름은 2cm 나비에 35cm이다.

고름의 봉제는 푸서의 경우 1cm의 시접을 달아 넣고 감침질로 처리하며, 걸고름의 위치는 점에 고름 나비의 1/2은 깃에 놓이고 1/2은 옆에 놓는다. 안깃 위에 놓인 속고름은 하나의 고름으로 겉 당의와 속 당의를 같이 바느질하여 이어 주며 속 당의의 옆 겨드랑이점에 감침질로 바느질 된 속고름과 매어 주어 형태적 안정성을 갖게 한다 [사진 9, 10, 11 참조].



[사진 9] 걸 긴고름 달기



[사진 10] 걸 짧은고름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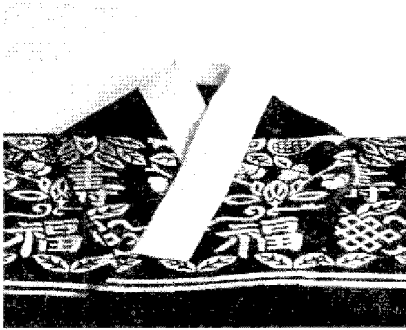


[사진 11] 속고름 달기

13) 동정 달기

동정도 고름과 같이 출토 시 발견되지 않아 동시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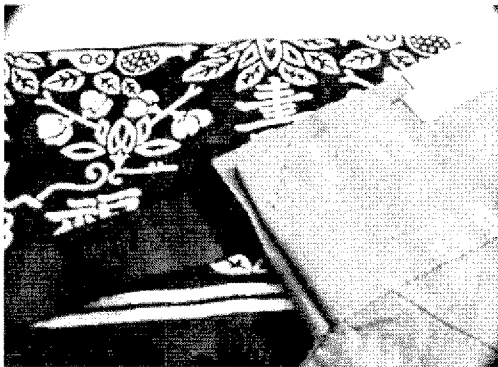
다른 유물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겹 당의와 속 당의 각각 거들지와 같은 장지문단을 사용하여 동정 안쪽에 심을 두지 않고, 제 천을 겹으로 마름질 하며, 0.5cm 간격으로 숨은 공그르기를 한다 [사진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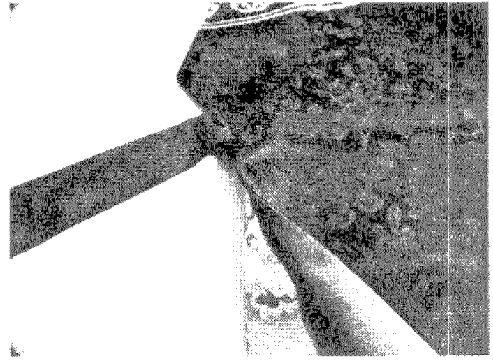
[사진 12] 동정

14) 겹 당의와 속 당의 잇기

겹 당의에 속 당의를 끼워 입는 2벌 당의 착장 시 형태의 안정성을 위하여 몇 가지 방법으로 겹 당의와 속 당의를 이어준다. 먼저 겹 당의의 안깃고름을 달 때 겹 당의와 속 당의 안깃을 같이 박아주며, 두 번째로는 겹 앞위쪽에서 약 3.5cm를 감침질로 이어주며 세 번째로는 깃 중심에서 약 5cm를 공그르기로 연결시켜 준다. [사진 13, 14, 15 참조]



[사진 13] 안깃 고름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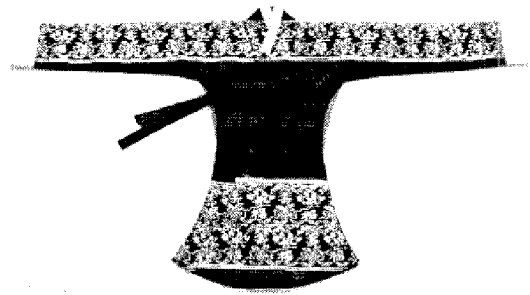


[사진 14] 겹 앞위쪽 감침질로 잇기



[사진 15] 깃 중심 공그르기로 잇기

이상과 같이 복원을 통해서 청연군주 2벌 당의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구성은 동시기의 성인 당의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없었다. 이는 조선시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보다는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기에 성인과 다른 점이 거의 없는 성인축소형 의복을 유아에게 입혔으며(강순제·이선민, 2003), 이에 따라 여아 당의 또한 성인 당의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옷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옷감의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형태의 안정성을 위한 봉제법을 적절히 응용하여 미적인 측면을 잘 살린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6 참조].



[사진 16] 복원품

I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광주군 세촌면 암동리에서 출토된 청연군주 2벌 당의를 중심으로 18C 중기 여아 당의의 이론적 작업과 실증적 작업인 복원품 제작을 통하여 구성법의 일면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보다는 성인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겨 유아 일지라도 성인복과 다름없는 성인축소형의 의복을 입혔다. 따라서 본 당의는 청연군주가 유아 시 착용한 유물 일지라도 그 형태와 봉제구성 방법은 동시기 성인 여성의 당의와 큰 차이점이 없었다.

또한 당의는 조선후기 저고리의 단소화(短小化)의 영향을 받아 화장, 진동, 소매 수구, 깃, 고대, 거들지 나비가 짧아지고 줄어들었다. 본 유물도 이와 마찬가지로 화장, 진동, 소매 수구, 깃, 고대, 거들지 나비가 짧아지고 줄어들었으며, 깃은 목판 깃과 당코 깃이 혼용된 형태로서 깃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길과 뒷길의 도련의 곡선 형태가 깊게 파인 형태를 볼 수 있었다.

2. 본 유물의 착용자인 청연군주는 왕실의 일원이다. 따라서 본 당의에 사용된 석류문단, 칠보 운문단은 중국에서 들여 온 값진 비단으로 비단들이 아니고서는 소용되기 힘든 재질로서 궁중의 화려한 복식 생활과 지엄한 존재로서의 대우를 알 수 있었으며, 일반 사대부가의 당의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봉제구성상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현재의 봉제구성 방법인 4점 박기와는 달 리 걸감과 안감을 따로 구성하여 이으며 걸깃 옆 쪽의 깃머리 부분 2.5cm를 을 세듯 걸감에만 상침 한 것은 걸감과 안감을 따로 구성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 청연군주 2벌 당의 착장 시 걸 당의와 안 당의는 꿰매어 입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끼워 입으며 걸 당의의 안깃고름을 달 때 걸 당의와 안 당의의 안깃을 같이 박아주고, 두 번째로 걸깃 위 쪽에서 약 3.5cm, 깃 중심에서 약 5cm정도 걸 당의와 속 당의를 감침질과 공그르기로 고정시켜준 것은 당의 착용 시 걸 당의와 속 당의의 형태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첨가된 방법으로서 흘당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봉제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봉제 시에는 전통적인 바느질법(임상임의 2인, 2002)인 0.1cm 내외의 고운 흠질, 온 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가 사용되었다.

4. 옷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옷감의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형태의 안정성을 위한 봉제

법을 적절히 응용하여 미적인 측면이 잘 살려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나날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유아 전통복의 올바른 인식과 봉제 방법이 보급되기를 바라며, 향후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융화된 유아 전통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2벌 당의, 유아 당의, 봉제구성, 청연군주

참 고 문 헌

- 강순제·이선민(2003), 兒童觀을 통해 본 兒童服 변화에 관한 연구, 춘계 복식학회발표 논문, 18.
- 김용숙(1986),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일지사. 295.
- 김용숙(1989). 한국 女俗史. 민음사. 143-148.
- 유희경(1975), 한국 복식사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473.
- 유희경·김문자 (1995). 한국복식문화사. 경춘사. 282.
- 이상은(1992), 조선왕조 복식사론, 동방도서, 407.
- 이효신(1978). 당의에 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상임·유관순(1999), 한복구성, 219-238.
- 임상임·유관순·추미경(2002). 조선후기 죽산 박씨 집안의 조복(朝服)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적초의·적초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5), 60-71.
- 백영자(1993), 한국의 복식, 경춘사. 274-275.
- 석주선(1985). 衣.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석주선(1988). 한국복식의 변천 「한국의 미」, 화보, 국립중앙박물관, 125.
- 신순자(1989). 가례도감의례에 나타난 당의에 대한 고찰.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 장인우(2001). 출토복식을 통해본 17세기 봉제구성 -임계백·임계백 묘 중심-. 한국의류학회지, 51(1), 33-48.
- 장인우(2001) 조선 중기 창 의 구성의 이해 - 전 박장군묘 청색 무명 겹창의의 재현을 통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5(3), 44-55
- 조효순(1988),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일지사, 189.
- 한국전통 어린이복식(200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단국대 출판부.

(2004. 04. 29 접수; 2004. 06. 09 채택)